

# 중동 의 시민혁명과 국제정치경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
서 정 민

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

# 리비아 사태



-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
- 17일 유엔 안보리 비행금지 구역설정
- 18일 대통령 최후통첩
- 19일 파리회담, 공격개시
- 군사작전은 적정성 논란
- 지상군 투입 가능성 논란
- 미국의 군사적 역할 불투명: 장기화 가능성
- 동,서부 분할 가능성 고조: 1991년 이라크 상황 유사
- 반정부세력 임시정부 출범
- 중단기적 유가 상승 압박

# 본질적 원인과 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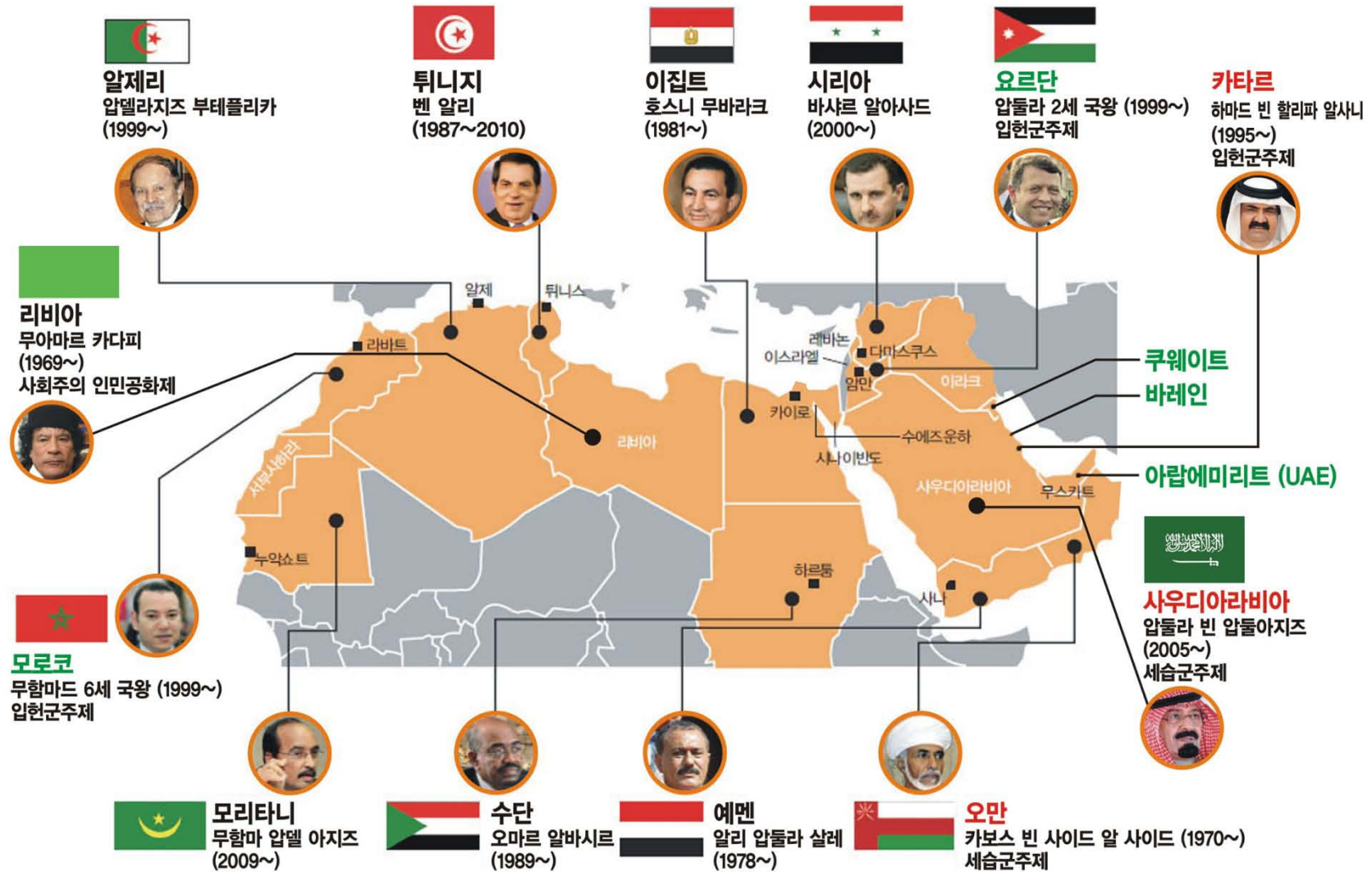
- 연료, 식품 등 물가 상승
- 생활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(튀니지 노점상 분신자살)
- 장기집권 및 세습 시도: 이집트, 예멘, 리비아 (시리아 2000년 세습 성공)
- 부패에 대한 불만 폭발: 집권세력의 정치권력 및 경제이권 독점
- 정치적 탄압: 비상계엄법, 정당정치 제한, 언론장악 등
- 재스민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시민의 자신감 확산

# 사회적 배경



- 낮은 사회유동성
  - 왕족, 군부의 기득권 유지
  - 신분변동의 어려움
  - 부족, 집안, 가문, 연줄에 의한 신분상승
-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
  - 개방물결에도 보수성향 유지하려는 세력의 반발
  - 남성주도 가부장적 사회, 여권신장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
- 낙천적 성격
  - 기후, 종교적 원인에 의한 노동의욕 저하

# 중동에 부는 민주화 바람



# 확산 과정(3월 중순 기준)

- 12월 17일 튀니지 노점상 부아지지 분신자살
- 1월 초 알제리, 튀니지 물가고로 인한 시위 발생
- 1월 14일 베알리 망명
- 1월 25일 이집트 반정부 시위 시작
- 1월 26일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정부 반대 시위 발생
- 1월 30일 수단 반정부 시위 시작
- 2월 06일 이라크, 인프라 확충 요구 시위 시작
- 2월 11일 무바라크 하야; 예멘 대규모 시위 시작
- 2월 10일 모로코 시위 시작
- 2월 13일 바레인 시아파 시위 시작
- 2월 14일 이란 반정부 시위 시작
- 2월 15일 리비아 반정부 시위 시작
- 2월 17일 사우디 동부 시아파 소규모 시위 발생; 현재 내전상황
- 2월 말 오만 800명 평화적 시위, 지부티 장기집권 반대 시위 시작, 쿠웨이트 유목민 시위; 3월 초 UAE 직접선거 등 개혁요구
- 3월 중순 카타르를 제외한 전 아랍권 크고 작은 시위 발생; 바레<sub>6</sub>인 사태 주변국 군사적 개입 시작



# 사태의 변화과정



- 튀니지, 이집트의 시민혁명: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개혁 운동
- 리비아, 예멘의 부족 간 갈등 양상: 시민혁명 + 부족주의의 결합
- 바레인의 종파간 갈등
- 사우디, UAE 등 GCC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
- 국내의 개혁요구가 지역적 종파 갈등으로 확산
- 내부의 개혁 요구 지역적 갈등으로 관심 돌리려는 정치적 전술
- 서방의 리비아 군사적조치

# 성격: 아랍판 프랑스 혁명



- 단순한 독재정권 타도를 넘어 사상혁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
-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 권위주의 인식체계의 변화: 물리력에 약한 속성에 충격
- 이슬람적 권위주의체계와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 (Islam = 순종 혹은 복종)
-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중동권으로 확산
- 리비아 사태를 계기로 부족간 갈등으로 비화 (예멘, 알제리, 걸프 왕국 등 비상)



# 중동의 정치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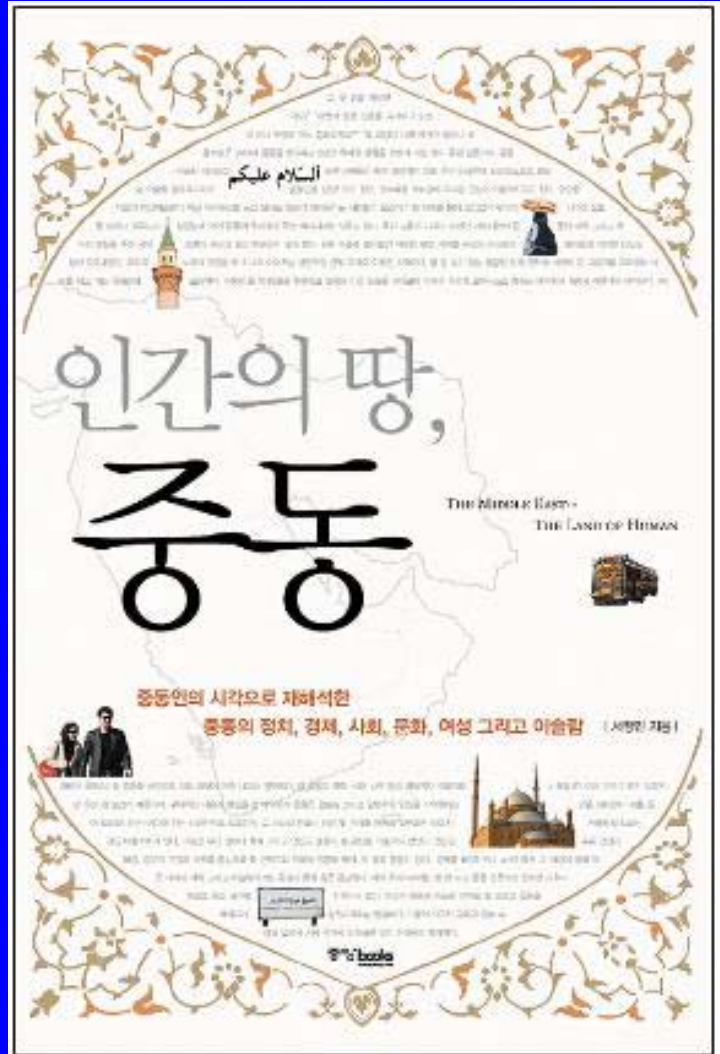


# 중동의 불안정 요소

국명	통치자 (나이, 집권년도)	불안정 지수*	부패순위 (178개국 중)	절대 빈곤총 (%)	평균 연령 **	청년층 실업 (%)	식자율 (%)
예멘	살리흐 (64, 1978)	86.9	146	41.8	17.9	15	61
리비아	카다피 (68, 1969)	71	146	n/a	24.2	n/a	88
이집트	무바라크 (82, 1981)	67.6	98	16.7	24	42.8	66
시리아	바샤르 (45, 2000)	67.3	127	n/a	21.5	24.4	n/a
사우디	K.압둘라 (87, 2005)	52.8	50	n/a	24.9	n/a	n/a
알제리	부테플리카 (73, 1999)	51.3	105	22.6	27.1	17.1	73
요르단	K.압둘라2세 (49, 1999)	50.3	50	14.2	21.8	n/a	92
튀니지	벤 알리 (74, 1987)	49.4	59	7.6	29.7	30.4	78
모로코	K.무함마드VI(47, 1999)	48.2	85	19	26.5	17.1	56
바레인	K. 하마드 (61, 1999)	37.7	48	n/a	30.4	19.6	91
이란	아흐마디네자드 (54, 2005)	n/a	146	n/a	26.3	25.1	82

출처: \*EIU Shoe-Thrower's Index from the Economist,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corruption index 0 (higher number = greater corruption), World Bank, CIA World Factbook, UN (\*\* Median age) and BBC

# 성격: 알-카에다는 없었다!



- 이슬람의 이념이나 과격주의 운동이 개입하지 않음
- 시민혁명의 이슬람화라는 우려는 지나친 이슬람 공포증임
- 수니파 1400년 역사에 단 한 차례도 종교가 권력 위에 올라선 적이 없음
-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 확대 예상
- 그러나 터키의 정의개발당 모델로 갈 것임
- 이슬람 종교의 렌즈로 중동을 보려는 시각 주의필요

# 이슬람 문화는?



- 사막에 유지되고 있는 19세기 한국의 유교 문화
-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적으로는 전통 상당부분 유지
- 유목민족의 남성중심 가부장적 전통 + 이슬람 종교
- 이슬람 = 종교 + 삶의 방식
- 종교와 더불어 통치철학이자 개인과 삶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에 영향
- 서양보다는 동양적인 문화
- 57개국 이슬람 국가 57개의 얼굴, 사우디는 가장 잘못된 전형
-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문화, 철저한 가족과 부족의 연대



# 성격: 21세기 시민혁명의 모델 제시



- SNS를 통한 풀뿌리 민주화 운동의 성공적 모델 제시
- 리더가 없는 혁명 (최근 타 중동국가는 조직하는 단체가 등장하고 있음)
- 히드라와 같은 SNS: “손바닥 안에 들어온 첨단통신기술로 권위주의 정권의 목에 비수 겨냥”
- 09.06 이란 불공정 대선 항의 여대생 네다의 사망
- 정부는 인터넷, 무선통신망 차단 방식으로 대응
- 20일 중국서도 재스민 혁명 선동 글에 중국 당국 긴장

# 파급효과: 중동의 질서 재편



- 세속적, 민족주의적 혁명의 확산 현상
- 시위성격 반미화 가능성: 팔레스타인 25일(금)을 분노의 날로 지정; 정착촌 건설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안 표결 미국의 거부로
- 이란의 영향력 강화: 이란 군함 2척 수에즈 운하 통과 예정; 터키와의 정상회담; 시리아와의 합동 군사훈련 합의
- 이팔분쟁의 중재 한동안 어려운 상황
-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친미국가 역할 감소
- 3.13 GCC 연합군 바레인 파병

# 미국과 서방에의 영향



- 미국의 영향력 판도 재편: 대중동 정책 틀 변화할 것; 아래로부터의 혁명 미국의 통제능력 크지 않아
- 이집트, 바레인, 리비아 사태에서 미국의 딜레마 나타나: G2→G0?
- 클린턴, 16일 “민주주의로 가는 많은 길” 자발적인 방법 인정
- 오바마, 이상에서 현실, 실용으로; 2009년 대이슬람 화해책 변화
- 동맹국의 붕괴, 미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 영향: 바레인 등
- 군 전력에 타격: 수에즈 운하, 이집트 영공, UAE와 카타르 비행장, 바레인 함대, 쿠웨이트 미군 보급기지

# 경제적 파급효과



-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은 적어, 석유수급 심리적 불안정으로 저강도 고유가 지속: 사우디 등의 증산능력, 각국의 개혁노력(학습효과), 미국의 사태 진화노력 가속화
- 사우디 등 주요산유국 불안정시 배럴당 220달러 이상 도달 (노무라증권)
- 수에즈 운하 지역 정세 불안
- 국가주도형 중동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
- 성장보다는 분배 기조 강화
- 상인정신 바탕으로 한 무역보다는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: 민족주의적 상품 확대



# 중동 경제구조의 변화

- Rentier Economy(지대추구형 경제) 구조의 변화
- 국가주도형 경제구조의 변화
- 산업다각화, 노동력 자국인화 가속화할 전망
- 중동의 경제개발 실패의 최대원인이었던 상업주의의 약화
- 제조업 보다는 장사, 무역, 사재기 관행: 예) 자동차 산업
- 중동권 산업 특히 제조업 부진한 이유도 상업주의적 특성임
- 정부주도의 산업투자 외에 민간투자 부진
- 공급주도의 경제개발이라는 투기성 사업의 감소



# 혼란기 테러 및 범죄세력 증가



- 혼란기 틈탄 알-카에다 등 과격세력 단기적인 활동 확대 예상 (장기적으로는 테러 감소 예상)
- 범죄세력의 증가: 부족 기반의 범죄단체 기승 예상
- 약탈의 전통: 무함마드 27회
-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증가
- 무장보안요원 승선, 강철 피난처, 철조망, 물대포 등의 자구책 마련 필요
- 소말리아 등 저개발 국가 정치 및 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

# 중국과 북한으로의 파급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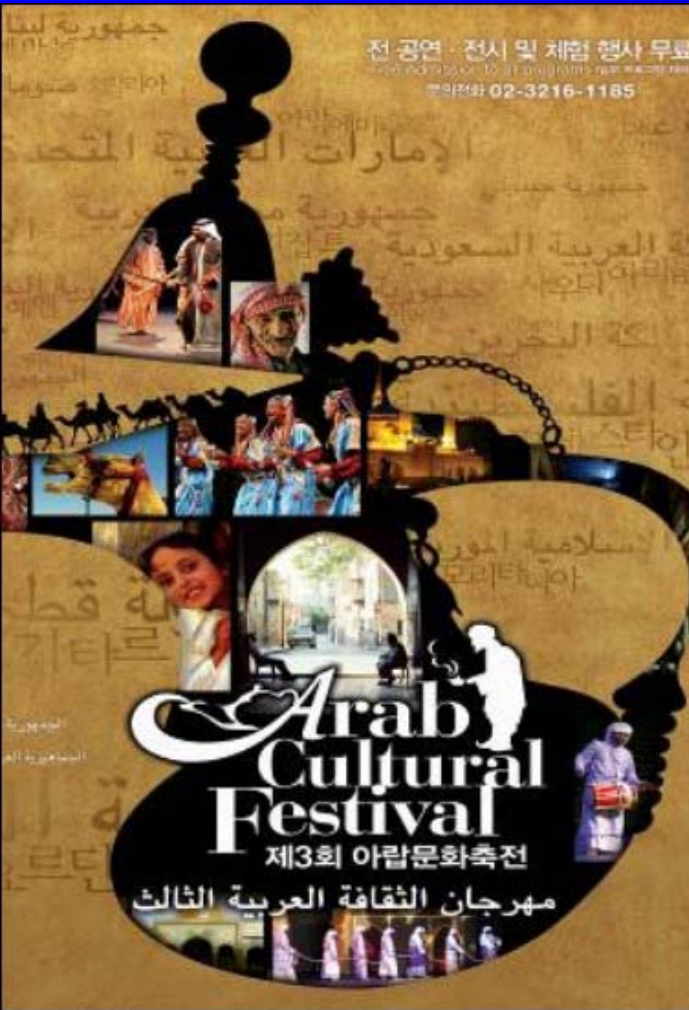
1월말 김정일  
국방위원장, 나길  
사위리스 오라스콤  
회장, 장성택  
국방위원회 부위원장

- 21세기 독재, 권위주의의 종말
- 중동에 국한된 혁명 아님: 남아공, 러시아, 이탈리아 등
- 2.20 재스민혁명 선동글 파장
- 중단기적 체제수호 가능
- 장기적으로는 체제붕괴 혹은 혼란의 가능성 높아
- 중국의 약점: 다민족 사회; 56개 민족, 100만 이상 17개
- 북한의 약점: 생활고, 세습
- 북한 2.25일경 손전화, 집전화 차단; 200명 리비아 근로자 귀국 금지
- 북한의 경우, M혁명 보다는 R<sup>19</sup>혁명 가능성 높아



# 우리의 대응방안: 대중동 전략

- 장기화할 중동 민주화 사태
- 태스크 포스 팀 가동
- 신축적인 교민보호 조치
- 중장기 대중동 전략 재정립 필요
- 다원화한 정치 및 경제 체제 등장: 시위 발생 원인도 다양; 섬세한 외교 필요
- 포괄적인 대중동 전략보다는 ‘쌍무적 동반자 관계’ 구축 필요성 증가; 맞춤형 외교 필요
-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외교 필요성: 문화원 설치 필요, ODA 기금 적극 활용
- 로비가 아닌 경쟁력 갖춘 플랜트 수주 전략 필요: 기업의 과다경쟁 자제





# 중동은 단일체인가



- 가장 보편적인 오류, “아랍, 중동, 혹은 중동 -----이다”
- 극과 극인 경우도 많아 (정치체제, 개방 정도, 경제구조, 문화 등)
- 개념상의 오류: 아랍, 중동, 이슬람세계는
  - 아랍
  - 중동
  - 이슬람세계

# 유망 분야의 변화: Amir's Choice



- 제조업의 활성화: 기술협력 및 J/V 투자;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에는 기회
- 생활필수품 관련 산업
- 전력, 담수화, 상하수도 등 플랜트 관련 분야
- 금융분야: 이슬람금융 포함
-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
- IT 관련 장비 및 부품
- 의료장비(서비스) 및 약품 등
- 시스템 구축
- 일반 건축, 무역, 수입대체가 가능한 산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가능성 높아

# 우리의 대응방안: 국내적 전략



2월 23일 상황

- 유가, 원자재, 곡물 등 가격 급등 등 외부적 악재
- 물가, 금융시장, 에너지 등 분야별 비상체제 가동 중
- 사우디, 이란 상황 주시
- 중동사태 장기화할 가능성 높아, 세계경제 더블딥(이중 침체) 가능성 배제 못해; 중장기적 전략 필요
-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 필요
- 해외(특히 중동)수출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안 마련
- 중장기적으로 해외 에너지 개발 적극 진출
- 북한 붕괴 대비 장기적 대응